지역 메아리

### 김제시보건소, 유방암 예방관리교육 실시

최근 8년간 5대 암 중 유방암 진료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해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보건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5대 암별 진료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위암 16.9%, 간암 29.8%, 대장암 39.3%, 자궁암 24.5% 각각 늘었다.

이에 반해 유방암은 79.5%나 증가했다.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여성회관 3층 강의실에서 '유방암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유방암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10월 세계 유방암예방의 달을 맞아 '여성들의 가슴을 건강하게 지키자'라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유방건강재단과 연계하여 유방암 환자인 전문강사를 초빙, 유방암에 대한 진솔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유방암은 유방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유방암 예방에서부터 관리에 이르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를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국토교통부 시행 '도시 지속가능성' 컨설팅 개최

완주군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 컨설팅'을 받고,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 컨설팅 및 세미나'를 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및 세미나는 완주군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회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및 완주군청 공무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호남권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 용역회사, 전북대학교 대학원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완주군의 생활인프라, 주민들의 삶의 질, 환경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완주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이하 도시대상)' 수상에도 한 발짝 다가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권장하고 보급하기 위해 도시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도시대상은 도시분야 국내 최고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4개 전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으뜸도시 완주군 '입증'

##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전 분야 석권
## 4개 전 분야 수상자 선정…3개 분야 우수사례 발표

완주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전 분야를 석권해 명실공이 최고의 지방자치임을 확인시켰다.

완주군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4개 전 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고,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매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다.

지방자치박람회에는 제7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지자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발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시상·발표 등 총 4개 분야의 시상이 이뤄졌으며, 완주군은 각각 생산성본부장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먼저 완주군은 제7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2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생산성본부장상과 함께 우수사례 분야까지 수상하며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도, 경제활동친화성, 평생교육 이용수준, 보건복지시설 확충 수준, 지역주민 행복도 등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는 장관상을 확정하고, '완주-전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완주군은 그동안 혁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요구대응과 두 개의 행정구역에 따른 행정상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협조,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발표에서는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완주군은 '청년! 완주에서 놀고 먹고, 완주에서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거주·문화·복지 등 청년층 삶의 다양한 문제를 일자리와 함께 해결함으로써 청년 실업률 등 청년문제 개선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에서는 고산면 주민자치회가 우수상을 확정지었다. 고산면은 고산 교육공동체 활동과 고산면지 발간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수상으로 고산 주민자치회는 4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완주군의 성과는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군정목표 아래 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 활성 등 주민들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들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지면서 인구증가, 재정확충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원영 완주군 부군수는 "완주군은 15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지방분권 주민 참여형 행정서비스 강화, 지역균형발전 추진, 아동안전 체계 구축을 통해 균형 있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빠른 시기 10만 시대를 개막하고, 전북 4대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상 수상

### 생산성 측정분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0일 경주 화백컨밴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공동 주최한 '제8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생산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종합행정역량과 경쟁력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수상하는 제도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다.

김제시는 생산성 측정 분야 중 △보건복지시설 확충수준 △채무상환율 △경제활동 친화기반 규제완화 정도 △주민참여 예산수준 등에서 전국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민과 전 직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한 결과 값진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라디오 선율에 이웃사랑을 담다

### 완주군, 봉동읍 소외가구 TBN 라디오 후원 모금 방송

완주군 봉동읍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특별모금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됐다.

봉동읍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해 TBN 교통방송에서 관내 저소득층 가구 특별모금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씨 세대는 비닐하우스에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앓으며 거주하는 부부중심가구다. 작은 농업소득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부부를 돕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라디오방송을 통해 성금모금에 나선 것. 그동안 봉동읍행정복지센터는 이씨 가구를 민간 자원과 연계해 지원해왔다.

공동모금회 추석명절지원사업 일환으로 현금 20만원, 대한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으로 420만원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씨는 거듭되는 병원비 등으로 대출금이 높아져 이자 상환에 급급해 정작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방송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대상자에게 전액 전달된다.

이씨는 "암투병과 가난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희망이 보인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최충식 봉동읍장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이웃사랑이 모이면 어려운 소외가구에 매우 큰 힘이 된다"며 "추후에도 관내 어려운 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후원 방법을 모색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봉동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시, '체험으로 배우는 도로명주소' 홍보

### 2일~3일 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일원

김제시는 11월 2일~3일 김제 시민운동장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릴 평생교육한마당에 참여하여 전북도청과 공동으로 도로명주소 정착과 생활화를 위해 홍보를 펼친다.

김제시는 행사장 내에 임시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과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도로명주소의 원리와 주소 표기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형 홍보는 '스탬프투어프로그램'과 '우리 집 도로명주소 써보기'로 구성된다. '스탬프투어프로그램'은 도로명주소의 원리로 부여된 건물번호와 도로명판 중 선택된 3개의 장소에 배치된 도장을 도로명주소를 이해한 관람객이 홍보용 전단에 찍어오면 소정의 상품을 받게 된다.

'우리 집 도로명주소 써보기'는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어린 관람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써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김제시 민원소통과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농협, 콩 선별장 준공식 가져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30일 조성일 수석이사를 비롯해 조합원, 임직원, 공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명덕동에 위치한 김제농협콩선별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와 기념사, 격려사, 주요내빈 축사, 테이프커팅식과 선별장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며 시운전시에는 참석자들이 큰 환호를 질러 눈길을 끌었다.

김제농협 콩선별장은 지난 3월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3,305㎡부지에 400㎡ 선별장 1동, 400㎡ 보관창고 1동으로 건축되었다. 선별장은 시간당 5톤의 선별능력을 보유하였으며 이에 토지매입과 토목, 건축, 선별설비에 보조 298백만원, 자부담 699백만원 포함하여 총 987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정부에서 쌀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생산조정제 등 쌀 수급조절을 위해 대체작물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바 김제지역에서 수년전부터 대량으로 논에 콩을 재배해오고 있다. 이에 김제농협은 2016년부터 논콩재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선진지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높여왔다. /김제=곽노태 기자